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통415장)

1.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매일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번제를 드리는 것을 사도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 드리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 롬 12:1-2)
2. 매일 드리는 번제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각각 어린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번 드릴 수도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각각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매일 번제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와 기쁨이 포함되어 있나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4. 43-46절에서 하나님을 '내가'로 여러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5. 매일 드리는 번제(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계절을 맞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어떤 마음 가짐, 자세가 필요할까요?